

'민주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교육'

도교육청, 평화감수성 키우는 교육방향 모색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8층 회의실에서 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기 위한 민주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평화통일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평화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이 스스로 사회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참여와 실천을 통해 평화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포럼에서는 평화통일시민단체와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질문지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 후 평화통일교육 학교 적용에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도교육청 최순삼 장학관이 사회를 맡고 원광대 이재봉 교수가 '평화시대를 열기 위한 민주시민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전주교대 박상준 교수가 '시민성을 기르기 위한 통일교육', 전북겨레하나 김성희 사무총

장이 '찾아가는 통일교육 성과와 한계', 주산중 이재호 교사가 '통일교육과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참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주시민이란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평화감수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화지향형 교육방향을 모색하고 평화통일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교육문화회관에서 지난 20일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밥상머리교육' 1차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리 가족은 사랑을 먹어요"

군산교육문화회관,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교육 '호응'

최근 학교와 사회에 인성교육의 중요성 대두되면서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받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경미)에서 지난 20일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밥상머리교육' 1차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집 밥상'을 주제로 상담전문가(김기순 대표)의 행복한 가족 식사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강의가 이뤄졌으며, 한식 요리전문가(임예진 강사)의 지도로 온 가족이 직접 영양식단(밀피우나베)을 만들어 먹는 요리 실습으로 펼쳐졌다.

이 프로그램에는 총 7가족 2명이 참석했다.

온 가족이 참여한 유쾌한 학생

부모님(김미라씨)은 "아이가 평소 먹지 않았던 채소를 먹었어요"라며, "자녀의 양육태도에 대해서 몰랐던 분야를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줘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김경미 관장은 "참여율과 호응이 높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행복해지는 교육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족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밥상머리' 7월(1~2차시)교육은 모두 마감됐으며, 8월(3~5차시) 수강접수는 오는 25일 군산교육문화회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다자녀(3자녀이상) 가족은 우선 선정되며, 신청순서에 따라 수강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고교생·학부모 초청 모의면접 실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3일 '2019년 고교생·학부모 초청 모의면접'을 실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대 진수당 일원에서 실시된 '2019년 고교생 및 학부모 초청 모의면접'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편성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렸으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처리되는 면접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날 모의면접에는 교수위촉 입학사정관들과 전임입학사정관들이 3인 1조의 면접조로 참석해 실전과 같은 개별면접 형식으로 진행돼 학생부종합전형을 체험하기 위한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이날 면접 체험행사는 도내 각급 고교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에게는 개별 모의 심층면접이, 참가한 학부모들에게는 면접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모의면접 참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대 입학본부 최나진 입학전형 부장은 "고교-대학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는 물론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를 위해 마련된 행사"라며 "실전과 같이 교수위촉입학사정관, 전임입학사정관 등 3인 1조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에 의해 학생 1인당 약 15분 동안 실체와 같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23일 '2019년 고교생·학부모 초청 모의면접'을 실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수성초, '여름계절학교' 프로그램 운영

정읍수성초등학교(교장 유재기)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여름계절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성초는 2019학년도 신규지정 혁신학교·자율학교로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문화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계절학교'는 이러한 교육과정 혁신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방학을 앞둔 일주일간 한학기동안의 배움을 돌아보며, 학기 중 중요했던 성취기준과 활동들을 정선하여 집중적으로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계절학교는 일주일동안 '책가방 없는 교육주간'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이 마음껏 즐기고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알찬 학년(급)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학년(급)별 교육과정에 따라 목공예나 지역도서관방문, 수상안전교육 등 색다르고 신나는 활동들이 펼쳐진다.

/장은성 기자



이처럼 다양한 체험활동이 있어 처음 실시되는 행사임에도 '책가방 없는 교육주간'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매우 높다.

한편, 정읍수성초등학교는 이번 여름계절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 겨울방학 직전에 겨울계절학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특색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정용준 교수 저서,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한국방송학회 학술상 이어 겹경사

전북대학교 정용준 교수(신문방송학과)가 저술한 '미디어 공론장과 BBC 100년의 신화(페러다임)'가 2019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지난해(사)한국방송학회가 주는 제17회 방송학회 학술상 저술 부문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학술원이 선정한 학술분야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이 책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정설로 통용되는 '20세기 가장 훌륭한 문화적 창조물'이라는 공영방송 BBC의 이념과 제도의 원형을 역사적으로 분석



하고 비판하고 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BBC는 국가의 통제와 상업적 선정주의로부터 벗어나 시청자들을 계몽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방송은 공영방송이고, 공영방송은 곧 BBC'라는 서부유럽적, 영국적인 방향성을 지니게 되어 한국 공영방송은 다원적인 개혁 지향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공영방송이 BBC를 이상화해 추종하기 보다는, 한국적 상황에 부응하는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한편, 정 교수는 2020년 방송 100주년을 기념하여 후속연구로 집필중인 '방송 100년사의 개혁자들'이 한국방송학회와 GS SHOP이 주최한 '2019년도 방송/영상 분야 저술 출판 지원사업'에 선정돼 한층 더 연구에 탄력을 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한재익 교수, 야생동물 질병관리 우수 '장관상'

전북대학교는 한재익 교수(수의대)가 야생동물 질병관리 부문에 이바지한 공로로 최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야생동물질병학 전공인 한 교수는 국립 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의 운영계획 수립에 기여했고, 특히 전북대가 운영하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을 맡아오며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했다.

환경부 지정 야생동물질병진단 기관인 전북대 동물질병진단센터에서 질병진단을 담당했고, 국립환경과학원 야생동물 시료수집 체계 구축에 참여



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한 교수는 동물 진료와 분자진단기법, 동물유래 항생제 내성균 연구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한수의학회가 선정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국내에 4명만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야생동물보존학회(ASCM, Asian Society of Conservation Medicine)가 인증하는 야생동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등 야생동물의학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한 교수는 충북대 수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충북대 동물의료센터에서 연구원,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수의과대학 진단랩 연구원을 지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